

## 폐암환자의 새로운 특징 - 국립암센터에 내원한 환자를 중심으로 -

국립암센터

천종호\*, 이흥기, 윤성민, 이대호, 한지연, 조재일, 이진수

**배경 및 목적:** 흡연은 우리나라의 암사망 원인 제1위인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암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담배를 피우지 않는 환자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간접흡연 등 다른 환경요인 및 유전요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및 대상:** 2001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에 내원하여 폐암으로 진단된 환자 512명중, 흡연에 관한 자료가 기록되어 있는 31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결과:** 전체 314명의 대상환자중 120명(38.4%)이 비흡연자였다. 남자 환자 219명중에는 32명(14.7%)만이 비흡연자인 반면 95명의 여자 환자 중에서는 88명(92.7%)이 비흡연자였다. 특히 비흡연 폐암환자의 중앙연령 55세(범위: 24-76)는 흡연력이 있는 폐암환자(금연자포함)의 중앙연령 61세(범위: 33-83)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다. 폐암의 조직학적 분류는 287명에서 가능하였다. 이중 비흡연자 116명중에서는 선암이 79.3%로 편평상피암(8.6%), 소세포암(3.4%), 기타(8.6%)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흡연자 171명중에서도 선암(39.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편평상피암(28.6%), 소세포암(18.7%), 기타(13.4%)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폐암은 흡연자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본 연구결과는 폐암발생에 직접흡연 이외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연령이 흡연자의 발병연령보다 낮은 것은 이를 더욱 뒷받침 해준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비록 제한된 자료에서 얻어진 결과이기는 하지만 유전적 요인 등 직접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폐암발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 30세 미만에서 발생한 원발성 비소세포폐암의 임상양상 및 경과

이세훈\*, 박세훈, 박진희, 이경은, 박준오, 김기현, 정철원, 임영혁, 강원기, 이흥기, 박근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배경:**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비소세포폐암은 더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고 더 나쁜 예후를 보이며 여성에게서 호발한다는 등의 보고들이 있지만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비소세포폐암의 임상양상 및 경과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조직학적으로 처음 진단되었던 원발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환자의 나이, 성별, 활동도(ECOG), 조직형, 병기, 전이장기의 분포, 치료방법 등이었으며 의무기록과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추적 자료를 구하여 Kaplan-Meier법으로 진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생존기간을 산출하였다.

**성적:** 등 기간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원발성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총 3455명이었고 이중 30세미만의 환자는 24명(0.7%)였다. 대상환자 24명 중 남자는 14명(58%)이었고 대상환자의 진단당시의 연령의 분포는 13세에서 29세까지였다. 흡연력을 알 수 있었던 23명 중 12명(52%)에서 흡연력이 있었으며 흡연자의 평균 흡연량은 5갑년(0.5-10갑년)이었다. 가족력의 확인이 가능했던 21명 중 직계가족에 악성종양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1명이었다. 체중감소여부를 알 수 있었던 23명 중 9명(39%)에서 5%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었다. 조직형별로 보면 선암이 16예(67%)로 가장 많았고 편평세포암이 3예, 점액표피양 암종이 3예였으며 나머지 2예는 정확한 조직형을 알기 어려웠다. 진단당시의 활동도는 ECOG 0-1이 19명, 2가 3명, 3가 2명이었다. 진단당시 임상병기는 IA가 1예, IB가 5예, IIB가 1예, IIIB가 4예, IV가 13예였다. 임상병기 IIIA 이하의 병기를 가진 7명(29%)의 환자가 모두 근치적 목적의 수술을 시행받았다. 술후병기는 임상병기 IB로 생각되어졌던 1명이 IIIA로 나타난 것 이외에는 임상병기와 일치하였다. 대상 환자의 추적관찰기간의 중앙값은 9.2개월(95% 신뢰구간: 3.4-15.1개월)이었고 전체생존기간의 중앙값은 12.1개월(95% 신뢰구간: 4.6-19.7개월)이었다. 근치적 목적의 수술이 불가능했던 17명의 전체생존기간의 중앙값은 8.3개월(95% 신뢰구간: 2.2-14.3개월)이었으며 근치적 목적의 수술을 시행받았던 7명은 모두 생존해 있어 전체생존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다. 근치적 목적의 수술을 시행받았던 7명 중 2명이 재발하였다.

**결론:** 30세 미만에서 발생한 원발성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원발성 비소세포폐암 중 작은 비율을 차지했다. 남녀 성비의 차이는 없었으며 조직형 중 선암이 가장 흔했고 절반 가량에서 흡연력이 있었으나 흡연량은 많지 않아 연관성을 알기는 어려웠다. 전체 환자의 예후는 좋지 않지만 조기병기에 발견되어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